

견훤의 전주 定都와 그 의미*

허인욱**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견훤의 세력 형성 과정과 광주 | 참고문헌 |
| 3. 전주 정도와 백제계승의식 | <Abstract> |

국문초록

후백제는 936년까지 짧은 시간 존재했고, 관련 기록이 그리 많지 않은 까닭에 성립과 발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견훤의 세력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서남주현에서 광주로 그리고 다시 전주의 순서로 전개된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이는 견훤이 892년에 처음으로 光州에 도읍을 정하였다는 『삼국유사』 왕력과 견훤이 습격하여 점거한 후에 ‘후백제’라 일컬었으며, 얼마 안되어 전주로 도읍을 옮겼다는 『고려사』 지리지의 서술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등에는 전주를 근거지로 삼아 광주와 그 동남주현을 세력화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기록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견훤의 백제 부흥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 견훤의 국가 건설은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한 이후에 가서야 공식화했다. 그는 고려시대 전부터 내려오던 마한-백제로 이어지는 역사인식을 명분으로, 전주에 도읍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어느 순간부터 대왕이

* 이 글은 2024년 6월 18일(화)에 전주시가 ‘후백제 왕도유적으로서 전주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주고도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남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E-mail: heoinuk@hnu.kr

라는 군주호를 쓰거나, 정개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독립국의 군주인 대왕이자, 한반도 전체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이 표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후백제, 전주, 광주, 견훤

1. 머리말

견훤은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한 후, 후백제를 건국했다. 후백제는 936년까지 짧은 시간 존재했고, 관련 기록이 그리 많지 않은 까닭에 성립과 발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았다. 자료의 부족에도 연구자들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그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기도 했다.¹⁾

견훤의 자립과 성장 과정 그리고 전주 도읍에 관한 내용은 그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 글 또한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글은 견훤의 자립 과정과 전주에 도읍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후백제의 성립과정에서 광주와 전주가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이해해 왔던 자료에 대한 의문 제기도 같이 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 또한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

2. 견훤의 세력 형성 과정과 광주

견훤의 자립은 진성왕 6년(892)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唐 昭宗 景福 원년(892)은 신라 진성왕 재위 6년인데, 왕의 충애를

1) 후백제 관련 연구성과는 조법종, 2005, 후백제와 태봉관련 연구동향과 전망, 『新羅文化』 27; 허인옥, 2021, 「후백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전북학연구』 4; 이도학, 2021, 「후백제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홍창우, 2023, 「후백제 관련 자료의 현황과 쟁점」, 『지방사와 지방문화』 26-1 · 2023,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채수록 참조.

받는 아이들이 (왕의) 곁에 있으면서 정권[政柄]을 훔쳐 제 마음대로 하니 기강이 문란해졌다. 그에 더하여 기근으로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떼도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에 견훤은 몰래 ㉠(왕위를) 넘겨다보는 마음[覲心]을 갖고, 무리를 불러 모아 왕경의 서남쪽 州縣을 돌아다니며 공격하였다. 이르는 곳마다 메아리처럼 호응하였는데, 旬月之間에 무리가 5,000명에 달하였다. 드디어 武珍州를 습격하였다.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다만 감히 공공연하게 왕을 칭하지는 못하였다. 自署하기를, ㉡‘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 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 2,000戶’라고 하였다. 이때에 北原의 도적 良吉이 강성하여 궁예가 스스로 투탁하여 휘하가 되었는데, 견훤이(이 소식을) 듣고 양길에게 관직을 遙授하여 裨將으로 삼았다.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西巡]하여 완산주에 이르렀는데, 州의 백성들이 맞이하였다.……마침내 후백제왕을 자칭하고 官을 설치하고 職을 나누었는데[設官分職], 이때가 唐 光化 3년(900), 신라 효공왕 4년이였다.²⁾

가)는 『삼국사기』 견훤전의 서술로, 진성대왕 재위 6년인 892년에 신라 정치의 혼란을 틈타 견훤이 자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성대왕의 실정이 시작된 시점은 각각 魏弘이 사망한 888년부터였다. 위홍이 사망한 이후, 진성대왕은 어린 미소년들과 어울리며 음행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국정을 위임하기까지 했다. 신라 조정 내에서는 뇌물이 오가고 상벌이 공정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에 기강이 무너졌으며,³⁾ 이로 인해 정치를 조롱하는 글이 나돌지경에 이르렀다.⁴⁾

889년에 가서는 모든 주군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다달았다.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지는 것은 당연했으며, 그로 인해 혹독한 조세 징수가 뒤따랐다. 그러자 곳곳에서 벌떼나 개미떼로 표현될 정도의 반발이 일어

2) 唐昭宗景福元季是新羅眞聖王在位六季 嬖豎在側 竊弄政柄 綱紀紊弛 加之饑饉百姓流移 羣盜蜂起 於是萱竊有覲心 嘯聚徒侶 行擊京西南州縣 所至響應 旬月之間 衆至五千人 遂襲武珍州 自王 猶不敢公然稱王 自署爲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 是時北原賊梁吉雄強 弓裔自投爲麾下 萱聞之 遙授梁吉職爲裨將 萱西巡至完山州 州民迎勞……遂自稱後百濟王 設官分職 是唐光化三季 新羅孝恭王四季也(『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3)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2年.

4)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2年·『三國遺事』 卷2, 紀異2 眞聖女大王 居陀知.

났다. 대표적인 반발은 889년 沙伐州에서 일어난 元宗과 哀奴의 난이었다. 村主 祐連 등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난이 평정되기는 하였으나,⁵⁾ 신라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시기의 혼란상은 “己酉年(진성 3·889)부터 乙卯年(진성 9·895)까지 7년 동안 천지가 온통 난리로 어지러워 들판이 전쟁터가 되어 사람들이 방향을 잃었으며, 행동이 짐승과 같았다”⁶⁾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견훤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무리를 모아 경주의 서남 쪽에 위치한 주현들을 공격하며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旬月之間에 5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호응했다. 순월은 한 달이나 10개월 또는 열흘에서 한 달 사이를 뜻한다.⁷⁾ 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견훤의 세력 형성이 이뤄졌음을 뜻한다.

무진주를 확보한 이후 견훤은 스스로 왕을 칭하였다. 이는 그가 자서한 ‘新羅西面都統……食邑 2,000호’를 통해 살필 수 있다.⁸⁾ 自王을 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壬子年 후백제 견훤이 스스로 왕을 칭했다.”⁹⁾는 『삼국사기』의 연표나 “견훤이 임자(892)에 처음으로 光州에 도읍을 정하였다[始都光州]¹⁰⁾는 『삼국유사』의 왕력이 도움을 준다. 견훤의 세력 형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892년 이전부터 이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 근거는 “龍化 원년 己酉(889년) 혹은 경복 원년 壬子(892)의 일이라고도 한다.……42년 庚寅에 견훤은 고창군 [지금의 安東府]을 치려고 군사를 크게 일으켜 石山에 진을 쳤다.”¹¹⁾는 『삼국유사』 견훤전의 언급이었다.¹²⁾ 용화는 唐 昭宗의 연호인 龍紀의 오기로, 그 원년인 기유는 889년에 해당한다. 또 견훤이 안동 공격을 위해 석산에 진을 친 것은 930년이였다.¹³⁾ 따라서 그 해가 견훤 재위 42년이라고 한다면,¹⁴⁾ 그 원년은

5)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3年.

6) 『五臺山寺吉祥塔詞』(許興植 編, 『韓國金石全文』 古代編, 亞細亞文化社, 1984, 235~236쪽).

7)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6, 1999, 615쪽.

8) 자서한 관직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채희숙, 「견훤의 자립과 무진주 호족」, 『호남학』 73, 2023 ·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재수록 참조.

9) 壬子 後百濟甄萱自稱王(『三國史記』 卷31, 年表 下 百濟).

10) 甄萱壬子始都光州(『三國遺事』 卷1, 王曆).

11) 『三國遺事』 卷2, 紀異2 「後百濟王甄萱」.

12) 일연은 『삼국유사』에 견훤 관련 서술을 하면서 『삼국사기』 견훤전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면서도 견훤의 자립 시기에 대해서만큼은 『삼국사기』의 ‘경복 원년 임자’와 함께 ‘용화 원년 기유’를 함께 거론하였다. 이는 그가 ‘용화 원년 기유’에 대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으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일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용기 연도를 서술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그가 견훤전을 서술하면서 『삼국사기』 외에 『李碑家記』나 『古記』를 활용했음을 고려하면, 용화 연도도 그러한 미지의 자료들 가운데 하나가 혼입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6, 178쪽).

889년이 된다. 이는 ‘42년 경인’ 기사가 후백제측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말해준다.¹⁵⁾ 견훤 자신은 889년에 자립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견훤이 889년 자립한 후 무진주를 거점으로 자왕을 하기까지 3~4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견훤의 자립과 관련해서는 935년 10월에 큰아들 신검이 발표한 교서의 “生丁衰季 自任經綸”¹⁶⁾이라는 대목이 도움을 준다. 이 언급은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게 된 앞뒤 상황을 압축한 것으로, 당대인들이 인식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丁은 ‘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성년의 사람’¹⁷⁾을, 經綸은 ‘국가의 대사를 계획하고 운영한다’ 또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포부와 재능’이 있음¹⁸⁾을 뜻한다. 즉 견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혼란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신라 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목격한 견훤이 나라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음을 담고 있는 언급인 셈이다.

견훤은 西南海 防戍로 부임을 했으며, 이후 공을 세워 裨將까지 승진하였다.¹⁹⁾ 견훤이 비장으로 승진한 시점까지는 신라의 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견훤이 종군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丁, 즉 그가 15세가 되는 881년으로 이해한다.²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견훤은 889년을 자신의 재위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881년 경에 서남해 방수군이 되어 비장까지 승진한 견훤은 신라 내부의 혼란을 겪으면서 889년 이후 觀心(㉑), 즉 분수 밖의 일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신검은 교서에서 ‘自任經綸’이라고 표현하였다.

견훤이 짧은 시간 안에 5천의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데는 군이라는 배경이 작용했다. 견훤은 왕경, 즉 경주의 서남주현부터 세력을 형성했는데, 서남주현은 일반적으로 견훤이 방수했다고 하는 서남해와 같은 곳으로 이해된다.²¹⁾ 견

13)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13년 正月 丙戌.

14) 태봉을 세운 궁예는 918년에 사망하였고, 고려를 세운 왕건 또한 930년은 재위 13년, 신라 경순왕은 재위 4년 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42년은 견훤의 재위 연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5)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93, 42~43쪽.

16)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17)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 1999, 100쪽.

18)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앞의 책 10, 2007, 1328쪽.

19)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20) 김중수, 「신라 하대 군제의 변화와 그 붕괴」 『군사』 80, 2011, 23~24쪽; 이상훈, 「신라 하대 왕위계승전과 사병의 확대」 『신라사학보』 48, 2020, 20쪽.

21) 이에 대해 강봉룡은 견훤이 처음 무리를 모아 진격한 서남 주현은 서부 경남 일대의 주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무주 동남쪽 지역은 전남 동부지역의 군현을 지칭하는 것으

훤이 서남해방수의 임무를 수행한 곳은 전라남도 순천과 여수시 일대로 이해되고 있다.²²⁾ 이는 그의 사위인 朴英規와 그의 경호를 책임진 引駕別監 金攄의 근거지를 이곳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²³⁾ 건훤의 서남주현 장악은 무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신검의 교서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고,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우기를 바람과 천둥처럼 하니 가까이와 멀리에서 준걸들이 달려왔다’는 언급이 이를 시사한다. 덕을 통한 교화도 그의 세력 확장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려준다.

서남주현을 확보한 건훤은 이후, 무진주(광주)로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889년보다 앞선 시점에 자립을 한 건훤이 서남해의 방수군을 이끌고 889년에 광주에 진출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²⁴⁾ 하지만 건훤이 무진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시점은 892년 이후에 가사였다. 이는 890년에 金鑑이라는 인물이 무주도독에 재임하고 있었다는 점²⁵⁾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890년에 무주에 신라의 관리가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신라의 명령체계가 이 지역까지 이상없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건훤의 무진주 확보 시기에 대해 도움을 주는 기록으로는 광주와 가까운 담양에 위치한 開仙寺址 석등의 명문이다. 이 석등에는 승려 入雲이라는 인물이 891년 10월에 京租 100석으로 농토 14결을 매입한 내용²⁶⁾이 새겨져 있는데, 승려가 세금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는 것은 명문이 새겨진 891년 10월까지는 신라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광주 인근까지 온전하게 미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훤이 광주를 확보한 것은 891년 10월 이후

로 봤다(姜鳳龍, 『甄萱의 勢力基盤 擴大와 全州 定都』, 『후백제 건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97쪽).

22) 李道學, 『甄萱의 出身地와 그 初期 勢力 基盤』, 『후백제 건훤정권과 전주』(전북전통문화연구소 편), 주류성, 2001, 69~73쪽. 건훤의 방수처로 추정하는 장소에 대한 정리는 이동희, 『전남지역의 후백제 유적과 역사적 성격』,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인, 2015, 187~188쪽 참조.

23) 박영규와 김충에 대해서는 정청주, 『신라말·고려초 순천지역의 호족』, 『전남사학』 18, 2002; 변동명, 『金攄의 城隍神 推仰과 麗水 豪族』, 『全南史學』 22, 2004; 『新羅末·高麗初의 順天 豪族 朴英規』, 『歷史學研究』 62, 2016; 변동명 참조.

24) 申虎澈, 『후백제』,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109쪽.

25) 『保寧聖住寺址郎慧和尚塔碑』.

26) 변동명, 『三國·統一新羅時期的 無等山과 光州』, 『무등산, 광주사람을 품다』,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65쪽.

에야 가서야 가능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892년에 도움을 삼았다는 기록 등과 호응한다고 할 수 있다.

견훤의 광주 진출과 관련해서 근거가 되는 기록은 892년에 처음으로 光州에 도움을 정하였다는 『삼국유사』 왕력의 언급이다. 이승휴도 “唐 昭宗 景福 원년(892) 임자년에 (견훤이) 武珍城[지금의 光州이다]를 근거로 처음으로 기틀을 닦았다.”²⁷⁾라고 하여 892년을 거론하였으며, 『고려사』 지리지에는 “眞聖王 6년(892)에 견훤이 습격하여 점거하고는 후백제라 일컬었으며, 얼마 안되어 전주로 도움을 옮겼다[移都]”²⁸⁾는 언급도 광주에 진출한 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만 『삼국유사』 왕력은 광주라는 지명이 태조 23년(940)에 처음 사용되었고²⁹⁾ 『삼국유사』 왕력이 대체로 『삼국유사』 편찬보다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⁰⁾는 점에서 광주에 도움을 한 분명한 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광주에서 전주로의 이동을 ‘서순’이라고 한 표현[㉔]과 892년에 完山賊 견훤이 완산주에 의거하여 스스로 후백제라 칭했고 武州의 東南쪽 군현이 항복했다³¹⁾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서술도 마찬가지이다. 전주가 광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³²⁾과 『삼국사기』 ‘신

27) 『帝王韻紀』 卷下, 加恩縣人阿慈介.

28) 『高麗史』 卷35, 志11 地理2 全羅道 海陽縣.

29) 『高麗史』 권57, 志11 地理2 全羅道 海陽縣

30)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책이었는데 편의상 『삼국유사』에 넣었다는 설(村上四男, 『三國遺事解題』, 『三國遺事考證』 上, 弗威文化社, 1975, 15~16쪽), 『삼국사기』가 편찬되기 이전인 1145년 이전에 편찬되었다는 설(강인구, 『新羅王陵의 再檢討』,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404쪽),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는 ‘왕력’이 없었고 ‘기이’편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 즉 일연 이후에 첨가되었거나 부록 정도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는 설(김상현, 『삼국유사 왕력편의 검토』, 『東洋學』 15, 1985, 236쪽), 1310년 이전에 일연과 무관하게 완성된 독립된 사서였으나, 『삼국유사』 초간시에 부록의 성격으로 첨가되었다는 설(김상현, 『三國遺事의 書誌學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41쪽) 등이 일찍이 제기되었다. 이후 왕력이 일연 또는 그의 문도들에 의해 완성한 것이 아니고 30여 년 이상 뒤 시기에 편찬되었다는 견해도 발표되었다. 왕력 편찬의 하한시기를 1310년 이후부터 등재되는 초간 또는 중간 시점, 즉 선초본이 완성되는 1394년 이전의 84년 사이로 본 것이다(李根直,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성격과 시기』, 『韓國史研究』 101, 1998, 46~47쪽).

31)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6年.

32) 서순을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순천 등지에서 전주로 직접 이동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려 말에 순천으로 귀양을 간 목은 李穡의 2남 李鍾學(1361~1392)이 ‘靑郊-臨津(파주)……益州-全州-南原山城-順天’(『麟齋遺稿』, 『南行錄』)의 경로를 따라 순천에 도착한 사실이 있는데, 전근대 사회에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통로를 가설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라본기』에 전하는 918년 이전의 중·하대 기록은 신라 자체의 전승 기록³³⁾이라는 점에서 이를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⁴⁾

광주 도읍과 관련해서는 현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무진고성에서 발견된 ‘國城’명 기와에 주목하기도 한다. 기와에 표기된 ‘국성’의 ‘국’을 ‘국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무진고성에서 아울러 출토된 봉황문 수막새 또한 왕궁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광주가 후백제의 첫 도읍지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³⁵⁾ 무진고성은 통일신라 중기에 무진도독성의 배후산성으로 축조되어 사용되다가 통일신라 말기에 대대적인 수축이 이루어졌고, 고려 후기에 다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이를 참고하면, 무진고성이 후백제대에 사용됐을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진고성을 후백제의 도성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배후산성으로의 역할을 담당했을 수는 있으나, 행정관서가 들어서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후백제시기 무진주 치소가 지금의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가 위치한 곳이 통일신라 및 고려시기의 관청 시설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³⁷⁾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⁸⁾ 견훤세력의 주둔지

33) 『신라본기』의 중·하대 기록은 『신라본기』의 기록은 진성여왕대 이후의 경우에는 신라 자체의 전승 기록을, 918년 고려 건국 이후에는 黃周亮이 찬한 고려 『太祖實錄』을 토대로 찬술한 것으로 이해된다(전덕재,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大邱史學』 120, 2015 ·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9 재수록 참조).

34)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견훤이 892년에 전주에 도읍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서남해안에서 광주를 거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기라거나(金甲童, 『後百濟 甄萱의戰略과 領域의變遷』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190쪽), ‘완산적’이라는 표현은 완산으로 천도한 900년 이후에나 성립할 수 있으므로 기록의 착종(배재훈, 『무진주 시기 견훤 정권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103, 2021, 312쪽)으로 보기도 한다. 또 훗날 근거지가 된 곳이 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된 것일 뿐,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이도학, 『甄萱의 出身地와 그 初期 勢力 基盤』 『후백제 견훤 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 『후백제사 연구』, 학연문화사, 2022, 107쪽)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신라 자체의 기록일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견훤을 ‘완산적’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견훤의 자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후백제대는 전주가 공식 지명이었다. 고려가 후백제를 통합한 이후에도 완산이라는 표기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고려 멸망때까지 공식지명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허인욱, 『고려 초기 전주 연구』 『사충』 111, 2024). 즉 후대에 어떤 이유로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완산보다는 ‘전주’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점에서 ‘완산적’은 신라 당대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35) 이도학, 『후삼국사 바른 읽기를 위하여』, 앞의 책, 2022, 30쪽.

36) 이에 대해서는 林永珍, 『武珍古城』 I · II, 全南大博物館, 1989 · 1990 참조.

37) 최영주, 2023, 『고고학 자료로 본 견훤 도읍지 무진주』 『歷史學研究』 90, 2023 ·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99~203쪽.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곳에서 도성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가 후백제 내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892년에 광주와 인근지역을 세력권 내로 확보한 견훤이 자서한 관함 ‘新羅西面都統……全·武·公等州軍事’(㉔) 가운데 武州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점은 견훤의 3남인 龍劍에게 무주도독을 책임지게 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같은 시기 2남인 良劍은 康州도독이었다.³⁹⁾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광주가 전주·진주와 함께 후백제 내에서 중요한 위치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신라서면도통’으로 자서했다는 사실은 당시 견훤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독립국의 군주가 아닌 신라의 지방관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물론 견훤은 복원에서 세력을 형성한 양길에게 비장직을 제수하며 독자적인 군주로서의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비장은 신라의 진성대왕으로부터 그가 받은 관직이었다. 즉 그가 양길에게 비장을 제수했다는 것은 독립국의 군주로서 행한 정치행위였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⁴⁰⁾ 다만 당시 그의 영향력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임을 고려하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

견훤이 신라를 부정하지 않았음은 896년까지는 ‘백제’를 대외적으로 강조하

38) 광주지역에서 후백제 관련 전설이 많지 않다는 점도 광주에 도읍이 두어졌을까 하는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물론 光州 北村에서 견훤이 출생했다는 「古記」의 기록이나(『三國遺事』 卷2, 紀異2 「後百濟王甄萱」), 그의 생가 마을이라고 하는 生龍洞 그리고 『광주목지』에 전하는 甄萱臺나 放牧坪(『光州牧誌』 古跡)의 견훤 관련 전승이 전해오는 것을 고려해야 할 듯하다. 생룡동은 광주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근대 문헌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여하튼 견훤이 광주 북촌에서 출생한 것과 군사활동을 통한 세력권 확보와는 별개의 것이고, 견훤대나 방목평 또한 견훤과 관련된 전설이기는 하나, 그것이 도읍의 존재를 말하는 기록은 아니라는 점에서 광주 도읍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39)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40) 비장을 제수한 시기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열전에는 이해에 궁예가 北原의 적 梁吉에게 투탁하였다(『三國史記』 卷50, 列傳10 弓裔)고 하지만, 「신라본기」에는 891년 10월에 복원의 적 양길의 궁예를 보내 명주 관내의 군현을 습격하게 했다(『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11, 眞聖王 5年 10月)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궁예가 양길에게 투탁한 것으로 보게 한다. 또 『삼국유사』 왕력에는 “大順 庚戌에 처음 北原의 도적 良吉의 무리에 투항하였다(『三國遺事』 卷1, 王歷1).”는 서술이 보이기도 한다. 대순은 당 소종의 연호로, 경술년은 890년에 해당한다. 제수 시기가 다 달리 나오고 있어, 시기 비정이 쉽지는 않다. 만약 890년이나 890년에 견훤이 비장을 제수했다면, 그 이전부터 견훤이 독립 군주를 자처했다고도 이해할 여지도 생긴다.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삼국유사』의 「孫順埋兒」조가 도움을 준다. 興德王代 경주 서부의 牟梁里에 살던 손순은 石鐘 하나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 뒷날 ‘百濟橫賊’으로 표현된 이들에 의해 이 종이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⁴¹⁾고 한다. ‘백제횡적’으로 표현된 이들과 더불어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라는 뜻의 ‘赤袴賊’으로 불린 무리가 주목된다. 적고적도 896년에 牟梁里에 침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⁴²⁾ 신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별개의 집단이 모랑리, 즉 지금의 경주시 건천읍 부근까지 각기 침입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백제횡적과 적고적은 같은 집단, 즉 견훤이 거느린 후백제의 병력이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⁴³⁾

그런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생활고를 견디기 어려워 일어난 草賊과는 다른 행동 유형을 보인다. 왕경 부근까지 침입해 무력 행동을 하거나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복장을 착용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동일한 색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둑[賊]’으로 불리고 있다. 즉 이때까지는 견훤세력이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견훤이 전주에 도움을 하기 전까지는 백제 부흥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즉 견훤이 광주와 인근 지역에 진출했을 때는 신라의 체제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는 태도를 선명하게 표출한 시기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3. 전주 정도와 백제계승의식

견훤은 900년 가서 전주에 도움을 청하였다. 이는 “(견훤이) 景福 元年 壬子에 이르러 왕이라 일컫고 完山郡에 도움을 청하였다.”⁴⁴⁾는 『삼국유사』 「후백제왕견훤」조의 언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복 원년 임자는 900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900년에 전주에 도움을 청하고 설관분직한 사실을 담은 『삼국사기』 견훤전[가]에서 확인된다. 이 언급은 견훤이 완산, 즉 전주에 도움을 하게 된 계기에 관련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즉 견훤이 순행하던 중에

41) 『三國遺事』 卷5, 孝善5 ‘孫順埋兒’.

42)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1 眞聖王 10年.

43) 변동명, 앞의 논문, 2004, 61~62쪽.

44) 『三國遺事』 卷2, 紀異2 「後百濟王甄萱」.

전주에 이르렀다가 그 지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점을 기뻐하여 전주에 도읍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견훤이 도읍으로 전주를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여러 견해를 제시했다. 지배 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영토의 확장이나, 나주 세력의 이반으로 인해 광주의 배후 지역이 취약성을 드러내자, 익산을 거쳐 전주를 선택했다고 본다.⁴⁵⁾ 신라의 지방 주군이 전주에 집중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견해는 전주에는 十停과 萬步幢 이외에 完山停과 完山州誓가 더 배치되어 심정과 만보당만이 배치된 무주나 공주에 비해 2배 정도나 많은 지방 주둔 정규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장악하여 군사적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에 의해 천도했다고 보는 것이다.⁴⁶⁾ 또 광주와 나주지역 간의 불화에서 찾는 견해도 있으며,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은 백제에 대한 귀속의식이 전남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도읍을 둔 것으로 보거나,⁴⁷⁾ 백제 재건을 선언한 여러 세력들 가운데 수도였던 公州에 弘奇라는 이가 웅거하고 있으므로, 사비성 도읍기의 금마저에 주목해 전주로 천도를 했다고 보기도 한다.⁴⁸⁾ 전주에 도읍을 두려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들이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자서를 하던 892년에 이미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거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견훤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한다. 그가 자서한 내용을 보면, ‘全·武·公 等州의 軍事’와 더불어 ‘行全州刺史’를 표방했던 것이다. 892년에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무주와 공주를 아우르는 세력권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⁴⁹⁾ 견훤의 구상에서는 전주에 도읍을 두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900년에 와서 전주민의 환영으로 인해 세삼스럽게 그곳을 재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주에 도읍을 정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바를 듯하다. 전주는 후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견훤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건설을 계획하였는데, 그가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국가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음 기록을 보자.

45) 申虎澈, 앞의 책, 1993, 50~51쪽.

46) 金壽泰,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124~226쪽.

47)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해안, 2008, 49쪽.

48) 이도학, 앞의 논문, 앞의 책, 2022, 148~149쪽

49) 姜鳳龍, 「甄萱의 勢力基盤 擴大와 全州 定都」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103쪽.

나) 견훤이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좌우에 일러 말하기를, “내가 삼국의 시초를 찾아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나 대대로 발흥하였다. 그런 고로 진한과 변한이 이를 뒤따라 일어난 것이다. 이에 백제는 金馬山에서 개국하여 6백여 년이 되었는데, 攄章 연간에 唐 高宗이 신라의 요청으로 장군 蘇定方을 보내어 배에 군사 130,000명으로 바다를 건넜고, 신라의 金庾信이 흙먼지를 날리며 黃山을 지나 泗泚에 이르러 唐兵과 합세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감히 完山에 도읍하여[立都於完山] 義慈王의 오래된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후백제왕을 자칭하고 官을 설치하고 職을 나누었다.……吳越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니 오월왕이 답례의 사신을 보냈다. 이에 檢校太保의 관직을 더하여 주었는데, 나머지는 전과 같았다.⁵⁰⁾

나)는 『삼국사기』 견훤조의 서술 일부이다. 견훤은 신라와 당의 연합으로 인해 백제가 멸망하였음과 백제의 마지막 군주인 의자왕의 숙분을 거론하며 자신이 백제를 이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다. 견훤은 전주에 도읍을 정한 이유를 역사적 연원을 들어 설명했다. 그는 삼국의 시작을 마한으로 보면서, 백제가 이를 이었음과 더불어 그 백제의 정통성을 자신이 이어졌음을 선언하였다. 즉 후삼국의 정통성이 후백제에 있음을 강조한 것과 다름이 없다.

견훤은 금마산에서 백제가 개국했다고 했는데,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건국과 관련해 비류는 彌鄒忽, 온조는 한강 남쪽의 慰禮城에서 건국하였다⁵¹⁾는 사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견훤의 이 언급은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백제의 금마산 개국은 백제사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완산주라는 지역을 부각시킬 의도에서였거나,⁵²⁾ 익산의 왕도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무왕의 익산 천도는 오늘날에 와서 그 면모가 드러난 것이다. 당대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분명

50) 萱喜得人心 謂左右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教興 故辰·卞從之而興 於是 百濟開國金馬山 六白餘季 攄章中唐高宗 以新羅之請 遣將軍蘇定方 以船兵十三萬越海 新羅金庾信卷土 歷黃山至泗泚 與唐兵合攻 百濟滅之 今子敢不立都於完山 以雪義慈宿憤乎 遂自稱後百濟王 設官分職……遣使朝吳越 吳越王報聘 仍加檢校大保 餘如故(『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51)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百濟始祖溫祚王.

52) 趙法鍾, 「後百濟 甄萱의 歷史繼承認識-高句麗 및 百濟의 馬韓繼承認識을 중심으로-」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전북전통문화연구소 편), 주류성, 2001, 376쪽.

하지 않다. 여하튼 견훤의 백제의 금마산 언급은 그의 역사 인식의 오류로 보고 있는 듯하다.

금마산은 익산에 위치하고 있다.⁵³⁾ 이와 관련해 『고려사』 지리지의 “金馬郡은 본래 馬韓國이다[後朝鮮의 왕 箕準이 衛滿의 난을 피해 바닷길로 남쪽으로 왔는데, 韓의 땅에 이르러 개국하고 馬韓이라 불렀다.]. 百濟의 시조인 溫祚王이 병합한 후 金馬渚라고 불렀다.……彌勒山石城[민간에서 전하기를 기준이 처음 쌓았다고 하여 箕準城으로 부른다고 한다.]이 있다. 또 후조선 武康王과 그妃의 陵[속칭으로 末通大王陵이라 부르는데, 백제 武王의 어릴 적 이름이 薯童이라고 한다.]이 있다.”⁵⁴⁾는 언급이 참고된다. 즉 이 기록은 후조선의 기준이 위만을 피해 금마산이 있는 금마군으로 피신했으며, 그가 이곳에서 마한을 개국했다가, 뒤에 백제의 시조 온조에 의해 병합되어 금마제가 됐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

기준이 금마에 이주하여 도읍을 세웠다⁵⁵⁾는 내용은 『帝王韻紀』에도 보인다. 마한의 존재를 보여주는 흔적으로는 기준이 쌓았다는 미륵산산성과 속칭 말통대왕릉이라고 불리는 무강왕 및 무강왕비의 능을 들고 있기도 하다. 물론 무강왕릉에 대해서는 백제 무왕일 수도 있다는 언급이 덧붙여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능이 고려시대 후기까지 마한의 왕릉으로 인식되었음은 충숙왕 16년(1329) 3월에 “도적이 金馬郡에 있는 馬韓의 祖 虎康王의 무덤을 도굴하였으므로 체포하였다”⁵⁶⁾는 『고려사』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虎는 혜종의 이름인 武를 피휘한 것이다. 따라서 1329년 3월의 호강왕 언급은 마한의 유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고려시대 기록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말해준다.

마한이 백제의 온조에 의해 통합되었다는 서술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찾아진다. 온조왕 8년(26)에 마한을 병합했다거나, 9년(27)에 마한이 드디어 멸망했다⁵⁷⁾는 서술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근초고왕대에 가서야 마한이 병합됐다는 현재의 역사 지식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⁵⁸⁾ 하지만 견훤 당대

5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 全羅道 益山郡 古跡.

54) 金馬郡本馬韓國[後朝鮮王箕準 避衛滿之亂 浮海而南 至韓地開國 號馬韓] 百濟始祖溫祚王并之 自後 號金馬渚……有彌勒山石城[謠傳 箕準始築 故謂之箕準城] 又有後朝鮮武康王及妃陵[俗號末通大王陵 一云 百濟武王 小名薯童](『高麗史』 卷57, 志11 地理2 全羅道 全州牧 金馬郡).

55) 『帝王韻紀』 卷下, 後朝鮮祖是箕子.

56) 『高麗史節要』 卷24, 忠肅王 16年 3月.

57)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26年 10月·27年 4月.

58) 온조의 마한 정복 기사는 백제왕이 마한왕을 대신하여 마한 사회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마한 전역에 대한 영역적 지배를 관철시킨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위가야, 『백제 온조왕대 영역확장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 50, 2013). 백제의 마한 병합 시기와 관련한 연구는 김기섭, 『백제의 마한 병합 시기 연구현황 및

에 그러한 인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⁵⁹⁾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서의 언급이 금마산에서 백제가 개국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역사지식에서 견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하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갖고 있던 역사인식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⁶⁰⁾

금마산에서 백제가 개국했다는 인식과 관련해 견훤이太祖에게 보낸 문서에도 “昔馬韓先起赫世勃興，於是百濟開國於金馬山.”⁶¹⁾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문서는 견훤이 전주에서의 백제 부흥을 선언한 이후 후백제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문서로 여겨지는데, 국가 성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보편적인 상식과 동떨어진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당시 사람들이 백제가 마한을 계승했으며,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했다는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언급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견훤의 역사적 인식이 옛 백제 땅에 남아 있던 백제 유민들의 삼한-삼국 역사관이 그대로 전승된 것으로 파악된다⁶²⁾는 견해가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해 『삼국유사』 마한조의 “요즘 사람들이 더러는 금마산을 두고 마한이 백제로 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잘못이다.”⁶³⁾라는 세주가 참고된다. 금마산과 백제의 연관성을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즈음의 사람들은 금마산이 마한, 백제와 관련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즉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했다는 견훤의 이해는 오류라기보다는 당시 보편적인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견훤은 자신이 세운 나라가 백제를 계승했음을 분명히 했다. 의자왕의 숙분을 씻겠다는 언급을 통해 신라와 당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本朝文

쟁점」, 『『마한사 연구현황과 쟁점』 학술대회』, 2024 참조.

59) 유형원은 『동국여지지』에서箕子의 41대손 朝鮮王 기준이 위만의 난을 피해 韓地에 와서 국호를 馬韓이라고 하고 50여국을 거느렸는데, 2백년을 지나 백제 온조왕 27년에 병합되었다(『東國輿地志』 卷5上, 全羅道 益山郡 建置沿革)고 하였다. 마한이 온조왕대에 병합되었다는 이야기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0) 1750년 안팎에 편찬된 것으로 이해되는 『備邊司印方眼地圖』의 전주지도에는 금마산보다 전주에서 좀 더 떨어져 있는 미륵산까지도 전주의 경내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신라말 고려초에 금마저가 전주 관할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1) 『三國遺事』 卷1, 紀異1 馬韓.

62) 김수미, 「백제 멸망 이후 馬韓 인식의 변화 양상」 『한국고대사연구』 77, 2015, 278~280쪽.

63) 『三國遺事』 卷1, 紀異1 馬韓.

粹』의 『大宰答新羅返牒』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이 첩은 일본의 다자이후에서 신라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답장을 받는 이가 ‘都統 甄公’임을 고려하면, 후백제에 보낸 외교문서임이 분명하다. 그 내용에는 견훤이 質子가 도망가서 이웃 나라, 즉 일본에 이것저것 무고했기 때문에 백제와 일본의 천년의 맹약이 깨졌고 그로 인해 300년 동안 양국이 소원하게 지냈다⁶⁴⁾는 언급이 담겨 있다. 여기서 언급된 질자는 신라의 金春秋를 가리킨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김춘추는 647년에 왜, 즉 일본에 사행을 간 적이 있었다.⁶⁵⁾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있던 당시 신라는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던 시기였다. 일본에 간 김춘추는 어떻게 해서든 왜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백제와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질자가 이웃 나라의 말을 무고하였다는 견훤의 표현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즉 양국의 교류가 끊긴 것은 백제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론이었다. 실제로 백제의 멸망은 신라와 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660년에 가서였기 때문에 김춘추의 이간질에 의해 양국의 교류가 끊겼다는 것은 과도한 의미 부여일 수도 있다. 하지만 후백제는 이러한 문구 삽입을 통해 자국이 신라의 신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백제를 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일본에 전달한 셈이 됐다.

후백제가 백제를 계승했음을 자처한 것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오월과의 교류를 하면서 당과는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백제는 오월과 890년대 중반부터 교류를 했는데,⁶⁶⁾ 907년에 멸망한 당과는 교류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나)에 보듯이 백제의 멸망에 당도 일조했음을 견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백제가 당과의 교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백제를 계승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백제를 멸망시킨 원흉인 당과의 교류는 정체성 및 정통성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다. 오월과의 교류에 집중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물론 당이 멸망한 이후에 가서는 북중국에서 건국한 後唐(923~936)과는 교류를 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925년에는 후당으로부터 책봉호에 ‘百濟王’과 ‘海東四面都統’⁶⁷⁾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64) 『本朝文粹』 『大宰答新羅返牒』.

65) 『日本書紀』 卷25, 孝德天皇 大化 3年.

66) 후백제와 오월의 교류에 대해서는 허인욱, 『後百濟의 對중국 교류 연구』 『사학연구』 122, 2016 참조.

67)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이다. 백제왕이라는 표현은 후백제가 대외 관계에서 신라의 신하가 아닌 백제국을 잇는 나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신라서면’이었던 부분이 ‘해동사면’으로 표기가 바뀐 사실도 볼 수 있다. 이는 견훤이 925년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신라의 신하가 아닌 신라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주인으로 자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견훤의 자부심은 군주호로 ‘大王’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살필 수 있다. 이는 신검이 교서에 견훤을 대왕이라고 칭했으며,⁶⁸⁾ 박영규가 견훤을 대왕⁶⁹⁾이라 호칭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가 있다. 이는 일본의 사서인 『扶桑略記』에 “全州王 甄萱이 수십 州를 쳐서 아우르고 大王을 칭하고 있습니다.”⁷⁰⁾라는 언급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그는 901년부터 政開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전주에 도읍한 이후 어느 순간부터 독립국의 군주인 대왕이자, 한반도 전체를 소유한 인물로 자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후백제가 삼한의 정통성을 잇고 있음은 신검의 교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관련해 “徇地三韓 復邦百濟”⁷¹⁾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徇地는 ‘영토를 탈취한다’⁷²⁾는 뜻이고 삼한은 마한·卞韓·辰韓을 말한다. 즉 견훤이 삼한의 땅을 차지하여, 백제를 부흥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한이 고려려, 변한이 백제, 진한이 신라가 되었다⁷³⁾는 崔致遠의 언급이 주목된다.⁷⁴⁾ 삼한이 삼국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입장을 따른다면, 삼한을 차지한 견훤은 삼국을 차지한 인물이 된다. 즉 견훤을 포함한 후백제인들은 삼한에서 삼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이 후백제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⁷⁵⁾

68)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69)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朴英規.

70) 『扶桑略記』 卷24, 醍醐天皇 延長 7年 3月 25日.

71)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72)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5, 2002, 235쪽.

73) 『孤雲集』 卷1, 「上太師侍中狀」.

74) 고려시대 이전의 삼국 인식은 현재와는 달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왕릉은 왕건의 나이 20세 때인 896년에 弓裔에게 朝鮮·肅愼과 함께 卞韓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송악에 성을 쌓아야 한다(『高麗史』 卷1, 「太祖總序」)고 했다. 북방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궁예에게 삼한 가운데 한 곳인 변한을 언급했다는 것은 변한이 한반도의 북방지역에 위치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은 金이 보낸 조서에 기자가 다스리던 옛 땅이 변한의 봉토(『高麗史』 卷21, 神宗 2年 5月 辛丑)라는 언급도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다.

75) 이는 박영규가 견훤의 고려 투항 이후에, 그의 아내인 견훤의 딸에게 왕건에게 귀부를 언급하면서 왕건이 삼한의 주인이 될 것(『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후백제가 삼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견훤이 전주에 도움을 한 뒤에 백제 계승을 본격적으로 표방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삼국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였는데, 그 시작은 전주에 도움을 두는 것에서부터였다.

4. 맺음말

견훤은 889년에 서남해를 중심으로 자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광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자리를 잡았다. 견훤의 세력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서남주현에서 광주로 그리고 다시 전주의 순서로 전개된 것으로 이해하여 왔는데, 이는 견훤이 892년에 처음으로 光州에 도움을 정하였다는 『삼국유사』 왕력과 견훤이 습격하여 점거한 후에 ‘후백제’라 일컬었으며, 얼마 안되어 전주로 도움을 옮겼다는 『고려사』 지리지의 서술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등에는 전주를 근거지로 삼아 광주와 그 동남주현을 세력화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기록이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견훤의 백제 부흥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 견훤의 국가 건설은 900년에 전주에 도움을 한 이후에 가서야 공식화했다. 그는 고려시대 전부터 내려오던 마한-백제로 이어지는 역사인식을 명분으로, 전주에 도움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어느 순간부터 대왕이라는 군주호를 쓰거나, 정개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독립국의 군주인 대왕이자, 한반도 전체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이 표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접수일: 2024. 11. 17. / 심사개시일: 2024. 12. 03. / 게재확정일: 2024. 12. 24.

참고문헌

1. 원문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孤雲集』 『帝王韻紀』 『扶桑略記』 『日本書紀』
『東國輿地志』 『光州牧誌』 『麟齋遺稿』 『新增東國輿地勝覽』

1. 단행본

강봉룡·김갑동·이도학·조명일·조법중·진정환·최홍선·허인욱,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21.

국립전주박물관,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2015, 공감인.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6.

林永珍, 『武珍古城』 I·II, 全南大博物館, 1989·1990.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2008, 혜안.

백제연구소,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변동명·배재훈·채희숙·최영주·이옥희·홍창우,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93.

이도학, 『후백제 견훤대왕』, 주류성, 2015.

_____,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 주류성, 2015.

_____, 『후백제사 연구』, 학연문화사, 2022.

전덕재,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9.

_____, 『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21.

전주전통문화연구원,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許興植 編, 『韓國金石全文』 古代編, 亞細亞文化社, 1984.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1·5·6·10, 1999·1999·2002·2007.

2. 논문

김기섭, 「백제의 마한 병합 시기 연구현황 및 쟁점」, 『“마한사 연구현황과 쟁점”

학술대회』, 2024.

- 김수미, 「백제 멸망 이후 馬韓 인식의 변화 양상」, 『한국고대사연구』 77, 한국고대사학회, 2015.
- 김종수, 2011, 「신라 하대 군제의 변화와 그 붕괴」, 『군사』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 배재훈, 「무진주 시기 견훤 정권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103, 한국고대사학회, 2021.
- 변동명, 「金忽의 城隍神 推仰과 麗水 豪族」, 『全南史學』 22, 호남사학회, 2004.
- _____, 「新羅末·高麗初의 順天 豪族 朴英規」, 『歷史學研究』 62, 호남사학회, 2016.
- 위가야, 「백제 온조왕대 영역확장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 50, 고려사학회, 2013.
- 이도학, 「후백제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21.
- 이상훈, 「신라 하대 왕위계승전과 사병의 확대」, 『신라사학보』 48, 신라사학회, 2020.
- 정청주, 「신라말·고려초 순천지역의 호족」, 『전남사학』 18, 호남사학회, 2002.
- 조법중, 「후백제와 태봉관련 연구동향과 전망」, 『新羅文化』 27, 2005.
- 최영주, 「고고학 자료로 본 견훤도읍기 무진주」, 『歷史學研究』 90, 호남사학회, 2023.
- 허인욱, 「後百濟의 對중국 교류 연구」, 『사학연구』 122, 한국사학회, 2016.
- _____, 「후백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전북학연구』 4,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1.
- _____, 「고려 초기 전주 연구」, 『사충』 11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4.
- 홍창우, 「후백제 관련 자료의 현황과 쟁점」, 『지방사와 지방문화』 26(1), 역사문화학회, 2023.

<Abstract>

Gyeon Hwon's Establishment of the Capital in Jeonju City and Its Meaning

Heo, Inuk*

In 889, Gyeon Hwon became independent centered on the southwestern coast. In the process, he secured Gwangju and established himself as a single power.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process of forming Gyeon Hwon's power developed from the southwestern district to Gwangju and then Jeonju in that order. This was largely due to the description in the Wangryeok of the *Samguk Yusa* that Gyeon Hwon first established his capital in Gwangju in 892, and in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Goryeosa* that Gyeon Hwon called it "Later Baekje" after he attacked and occupied it, and soon after moved the capital to Jeonju. However, there are records in the Silla Annals of the *Samguk Sagi* that suggest that he used Jeonju as his base and expanded Gwangju and its southeastern districts into his power, so it seems that some consideration is needed regarding this.

Gyeon Hwon's Baekje revival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centered on Jeonju were formalized only after he made Jeonju the capital in 900. He made Jeonju the capital, using the historical awareness of Mahan-Baekje that had been passed down since the Goryeo Dynasty as a justification. And at some point after that, he began using the title of the monarch, Daewang, and established the reign title, Jeonggae. This can be said to be an expression of his pride as the Great King, the monarch of an independent state, and the master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Later Baekje, Jeonju, Gwangju, Gyeon Hwon

* Hannam University